

우린 다르지만 소중한요.



마음 열기

- ‘ 먼나라-외눈박이 친구’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먼 우주 공간에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에도 지구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눈은 매우 특별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볼 수 있고, 아주 먼 곳도 볼 수 있으며, 막혀 있는 벽을 뚫고 볼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그 별나라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눈이 두 개인 아이, 지니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와 아빠 역시 매우 놀랐지만, 아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지니는 매우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니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엄마와 아빠는 무척 걱정스러웠답니다. 부모님은 지니를 의사 선생님께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지니가 성장하면서 점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지니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어둠속에서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 밝은 곳에만 있어야 했어요. 먼 곳도 망원경을 통해 봐야만 했고요. 지니는 학교에 다녔지만 책장을 넘기지 않고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꼭 책을 손에 쥐고 책장을 넘겨가며 책을 보아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나머지 공부를 하곤 했답니다.

지니는 매우 외롭고 슬펐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볼 수 있는 것을 왜 나만 보지 못할까?” 그리고 자신을 위로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지도 몰라.”

어느 날 문득 지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니는 세상의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 지니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굉장히 놀랐답니다. 사람들은 지니가 보는 것에 대하여 무척 궁금했어요. 지니는 초록색 나무와 보라색 꽃에 관하여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이야기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지니가 깊고 푸른 바다와 하얀색 거품을 내는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세월이 흘러 지니는 어른이 되었고 한 여자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지니가 눈이 두 개라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마음 풀기

○ 지니는 무엇이 가장 슬펐을까요?

○ 지니는 무엇이 가장 좋았을까요?

○ 지니는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나요?

○ 지니는 어떤 나쁜 점을 가지고 있나요?

○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0가지만 적어 봅시다.

•	•
•	•
•	•
•	•
•	•